

# 흙으로 만든 '널'

〈시체를 넣는 관이나 꼭〉

독널무덤 축조방식 조명

토기·항아리 등 260여 유물 전시

장례 풍습 등 당대문화 투영

## 고요한 위엄

인간의 통과례 가운데 장례는 당대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다. 내세사상은 물론 현세의 바람 등이 투영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다른 독특한 장례 문화는 당대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고대 영산강 유역은 찬란한 문화가 꽃을 피우고 유서 깊은 역사가 면면히 이어져 왔다. 고대국가 시기에는 독자적인 토착세력이 정치체제를 갖추고 인접 연맹체와 관계를 유지해왔다.

영산강 유역 고대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장례 풍습이다. 독널무덤은 영산강 고대 사람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특징이나 키워드다. 영산강 유역에서는 지금까지 독널 외에도 내부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됐다.

독널무덤의 축조방식과 그 안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적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겨울 방학을 맞아 지역 고대 역사와 문화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김상태)이 오는 3월 15일까지 진행 중인 '흙으로 만든 널, 고요한 위엄: 고대 영산강 유역 사람의 마음을 담다'는 고대 사람들의 문화를 대면하는 시간이다.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토기, 청동거울, 청자 잔, 항아리 등 260여 점을 선보인다.

김상태 관장은 "이번 전시에서는 나주 반남고분군을 비롯해 영암 옥아리고분, 쌍무덤 등지에서 발굴된 다양한 고대 유물 등을 볼 수 있다"며 "당대의 유물을 통해 영산강 유역의 지역 토착 세력의 장례 풍습과 문화 등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시의 주 내용은 독널무덤이다. 당대 지역 세력의 사회·문화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축조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독널무덤은 다른 고대 사회 무덤과는 차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 봉분 안에 다수 독널을 넣은 '다장'(多葬) 무덤 형식을 띠는데 흙으로 봉분을 쌓고 정상 부근에 독널을 묻는 이른바 '선분구후매장' 방식이 통용됐다.

‘고대 영산강 유역 사람의 마음을 담다’전

3월 15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



나주 덕산리 3호 무덤 중앙 성토부분 실측모습.

〈동서문화유산연구원 제공〉

이 같은 '다장'은 후일 진족이 사망하면 동일한 봉분에 독널을 추가하는 방식과 연동된다. 같은 봉분 안에 10여기까지 독널을 추가하는 '추가장'이 이뤄졌던 것이다. 이때 무덤 위쪽은 장식을 꾸며 위엄을 갖추게 했다. '분주토기'라 불리는 원통모양 토기는 장식적 효과로 드러났다.

이번 전시는 모두 3부로 짜여져 있다.

제1부는 어떻게 독널무덤이 영산강 유역 대표 무덤 양식이 됐는지 조명한다. '독널로 하나된 사회'를 주제로 당대 정치, 사회체제의 특징 등을 독널무덤이 정착되는 과정과 연계해 살펴볼 수 있다.

지역만의 독특한 독널무덤 문화를 조망해 둔 전시도 있다. 제2부 '독자적인 독널무덤 조성'은 크기가 큰 독널의 제작 방식 외에도 무덤을 쌓는 방식 등을 조명한다. 특히 하나의 봉분에 여러개 독널을 넣는 추가장은 진족 중심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제3부에서는 독널무덤이 지향하는 정신세계의 단면을 조망한다. '공유된 독널 매장 풍습'을 모티브로 독널을 매개로 진행됐던 장례 양식을 살펴보고 고대 사람들이 망자를 위해 기원했던 내세사상 등을 알아본다.

전시와 관련된 체험도 마련돼 있다. '독널무덤을 만든 영산강 사람'을 비롯해 '큐레이터와의 대화' 등을 통해 고대 영산강 유역의 지배체제 특징과 장례문화 등을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김 관장은 "고대 사람들의 장례문화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의 계기를 준다"며 "전시를 모티브로 영산강 지역 문화를 다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창극단 미당창극 '열어볼 결심'의 한 장면.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 놀이로 만나는 '빛고를 아침 꼬마풍류'

광주시립창극단, 4월부터 광주예술의전당 국악당 앞

영유아들이 전통예술을 놀이처럼 만나는 국악 공연이 열린다. 광주시립창극단이 신년 기획공연 시리즈 '빛고를 아침 꼬마풍류'를 4월부터 광주예술의전당 국악당 앞 야외무대에서 선보인다.

'빛고를 아침 꼬마풍류'는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참여형 국악 프로그램이다. 전통음악과 춤, 연희, 창극을 '공부'가 아닌 '경험'으로 접하도록 구성했다. 이번 상반기 공연은 오는 4월 7일부터 격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 열린다.

공연은 아이들이 공연장을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야외 공간을 활용해 마련된다. 아이들은 소리꾼과 연주자의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보고, 손뼉을 치고 장단을 따라하며 자연스럽게 무대에 참여하게 된다.

무대는 민속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꾸며진다. 판소리와 창극, 연희 요소를 결합해 아이들이 '이야기 있는 소리'로서의 국악

을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전통 악기의 소리와 리듬을 몸으로 체험하며 국악을 낯설지 않은 문화로 인식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 역시 유치원생의 눈높이에 맞춰 간결하게 구성됐다. 해설이 곁들여진 짧은 소리 대목과 전통악기 소개, 장단 놀이, 인물의 성격이 분명한 창극 장면 등이 이어진다. 감정과 행동을 몸짓과 표정으로 풀어내 아이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광주시립창극단에 문의하면 된다.

김홍호 예술감독은 "아이들의 웃음과 호기심으로 채워질 이 아침 무대는 창극의 미래 관객을 키우는 작은 씨앗"이라며 "놀이처럼 만난 첫 국악 경험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지역 대표 문학단체, 신년 총회 잇따라

광주전남작가회의·소설가협회, 새해 활발한 활동 다짐

지역의 대표 문학단체가 잇따라 새해 정기총회를 열고 올 한해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미승)은 지난 24일 오후 3시 빛고를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김미승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25년은 탄핵, 대선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한마디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며 "작가회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바쁘게 지나갔다. 올해도 회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한 해를 보람되고 의미있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날 총회는 고문 대표 축사, 감사보고, 지부보고가 있었다. 특히 지부 보고에는 순천, 여수, 목포 지부의 올해 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눈길을 끌었던 순서는 신입회원에 대한 전각 중점과 소개 순이었다. 대상은 강혜원, 고승우, 기복진, 김성열, 김영삼, 김영숙, 김주선, 박강현, 송미성, 심미소, 이운

승, 장은영, 정경주, 정경이, 정희정, 하호인 등이었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소설가협회(회장 이진)는 지난 23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중앙로 헤뜨는집 2층에서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이진 회장을 비롯해 김경희, 김현주, 조성현, 김문석, 이민주, 김만성, 기정옥, 최문경, 이은유, 김미용, 송은유, 성복순, 신동규, 박이수, 경변, 김지원, 양희옥, 손민두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소설가들은 그동안의 신간 발간 등 활동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창작을 독려하는 대화를 나눴다.

이진 회장은 "광주전남소설가협회가 회원 등 증가와 맞물려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어 뿌듯하다. 이 모든 것이 작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이라며 "붉은 말의 해인 '적토마'의 해답게 올해도 모든 회원들의 문운이 상승해 좋은 작품 창작이라는 결실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별보다 빛나는 독서 여행’ 함께 떠나요

28일까지 광주 문화의숲도서관…초등 3~6학년 대상

별과 우주는 언제나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하늘 너머에는 어떤 행성이 있고, 밤하늘의 별자리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을 위해 독서와 체험을 통해 우주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광주 문화의숲도서관은 26일부터 28일까지 오전 9시 30분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독서교실 '별보다 빛나는 독서 여행'을 운영한다. 선착순 15명. 이번 독서교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전국 공공도서관이 함께 진행하는 겨울 독서 프로그램의 하나로, 방학 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책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단순한 독서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와 놀이, 체험을 결합해 읽기의 즐거움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의 중심 도서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우주 100가지'다. 아이들은 이 책을 바탕으로 별자리와 우주 이야기를 따라가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활동 12곡과 신화 속 별자리 이야기를 함께 읽고, 우주를 주제로 한 게임과 퀴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 개념을 익힌다.

체험 활동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나만의 과학 우주 상자'〈사진〉를 만들어 보며 상상력을 더하고, 별과 행성을 소재로 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책에서 읽은 내용을 손으로 직접 표현해본다. 읽기와 만들기, 놀이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문화의숲도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건물 리모델링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